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 중·고생을 위한 첫 찬양 큰 잔치

### ‘중·고딩 지저스 월드’ 23일 오후 3시 교회당에서

#### 푸짐한 경품 행사도 마련

중·고등부를 위한 찬양집회가 23일 오후 3시부터 교회당 본당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행사는 사명자대회의 진행과 발맞추어 청소년층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이 예수님께 보다 가깝게 접목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주최자인 중·고등부에서는 이번에 추진 중인 지저스월드에 대해 “말씀과 찬양을 적절히 구성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청소년을 위한 집회를 시도했다”고 밝히고 중·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이 집회에 참여하고 성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저스월드의 주요 행사는 복음 선포와 찬양 잔치로 구성된다.

복음 선포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은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예수님에게 접목시키며 바로 고백하는 길을 찾게 되는 기회를 갖는다. 또 복음선가 가수 박종윤 전도사와 그 찬

양팀이 인도하는 찬양 집회는 청소년층의 감성에 맞는 영혼의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푸짐한 경품 행사도 마련하여 참석자들에게 각종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며 다양한 간식이 마련된 친교의 시간을 통해 청소년들의 간의 격없는 대화의 장도 마련된다.

이 행사를 위해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은 500명 청소년의 참석을 목표로 수주전부터 행사 준비를 계속하면서 기도회도 가지고 있다.

#### 진학과 취업을 위한 기도회

고3 및 재수생 등 진학과 취업을 앞둔 청소년을 위한 기도회가 17일(주일) 오전 11시 고등부실에서 개최된다.

이 기도회는 연초에 결연, 함께 기도해 온 학생과 후원자,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과 선�후배들, 그리고 관심있는 성도들이 진학과 취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 피택장로 5인 노회고시합격

지난 5월 30일 공동의회에서 피택장로로 선출된 민순구 장로, 윤찬오 집사, 이완형 집사, 임훈규 집사, 이변생 집사는 그동안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10월 14일 서울 강남노회 고시부 시취에 응시, 전원 합격했다.

이들은 남은 과정을 마치고 과제물을 제출하면 오는 11월 28일 우리 교회설립 제 8주년을 기해 안수를 받게 된다.

#### 10월 학습·세례식

10월 학습·세례식이 20일(수) I·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세례자를 위한 교육은 17일(주일) II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실시되며 학습·세례를 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성도를 위해 18일(월) 오후 7시에 추가교육이 열린다. 문답은 19일(화) 오후 7시 4층에서 있다. 문의는 새가족부로

오늘의 기독교 청소년만큼 갈래길이 많은 때도 없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찬란한 문화의 유산을 향해하기엔 너무도 바쁘고 힘들다. 어른들은 상술로 많은 문화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청소년은 정신 없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문화라는 것이 창조적이거나 생명력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고 감각적이거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정도의 것이거나 심지어 퇴폐적이고 폭력적이거나 뒷골목 문화여서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청소년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고 무능력,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10여 년간 계속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불을 보듯하다.

청소년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므로 겪어야 할 비극이 바로 눈 앞에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아무 것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 역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아무리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적일지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절대로 그 업을 유산으로 물려주거나 노하우를 가르치지 않으며 오히려



중·고딩 지저스 월드에 붙여

### 청소년을 잊은 비극

김광신(장로, 고등부 부장)

자기 직업을 절대 비밀로 할 뿐 아니라 아들이 가볍게라도 도적질을 하는 경우에도 대노하는 법이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책임지어야 할 내용은 우리 자신이 건전치 못한 문화를 행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식에게 그 문화를 상업적으로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예수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끝없는 고행이 있어야 할 시점이다.

그런 뜻에서 서울교회 중·고등부에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학생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작은 잔치를 열려고 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복음선가 가수 박종윤 전도사와 그의 찬양팀의 인도로 은혜와 감격의 찬양순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작은 잔치를 개설하면서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아울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응원을 기다린다.

미래를 엮어갈 젊은이들의 오늘을 위하여 어른들의 관심과 참여와 애정어린 표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사야 강해

농부의 비유

이사야 28장 23 - 29절

성도도 가끔 환난의 바람을 맞고 어려운 고개를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깊은 섭리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믿어야 할 뿐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23절). 선지자는 중요한 말을 전할 때 백성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를 농사를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1. 농부에게는 목적이 있다

밭이랑만 같이 놓고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에게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목적을 가지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밭 가는 자와 곡식을 따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고전9:10). 밭을 개간하여 지면을 평평히 하였으면 토질에 맞는 씨를 뿌릴 것입니다(25절). 소회향은 양귀비와 비슷한 식물이며 대회향은 소회향보다 조금 큰 식물입니다. 이와 같이 씨를 뿌리고 나면 소맥(밀)과 대맥(보리)과 귀리를 심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방법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26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심은 멸망케 하려 함이 아니고 회개케 하려 하심입니다. 회개시켜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적당한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2. 농부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농부에게 적당한 방법을 가르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26절). 들에 피는 백합화에게 누가 그렇게 고운 옷을 입히셨습니까? 공중의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으나 하나

님은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소회향은 작대기로 썰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 따는 방법과 사과를 따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농부는 관찰과 경험에서 지식과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씨 뿌리고 거두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개로 썰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썰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썰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썰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사 28:23 - 29)



이중운 목사

곡식은 늘 떨기만 하지 않고 수레바퀴를 굴려 말굽으로 밟게 하나 부수지는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28절).

농부도 이와 같이 지혜로 일을 하는데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의심을 하겠습니까?

3. 농부의 비유가 가르치는 교훈

농부가 지혜롭고 주의 깊게 그리고 친절하게 곡식을 다루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주 세심하게 다루십니다. 심을 때 심고, 물 줄 때 물을 주며 거둘 때는 합당한 방법으로 거두십니다.

곡식의 특성에 따라서 타작의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경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매시기도 합니다. 징계도 우리의 성격과 처지에 따라서 달리 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우리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시고 진리로 살기로 원하시며 봉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를 맞으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때 맞는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같은 징계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 3:9).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요15:1). 하나님은 말씀과 교회의 규례로 우리의 마음밭을 지금도 경작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경작된 땅에 종들을 통하여 씨를 뿌리시며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락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에게는 타작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곡식단에서 열매를 때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타작의 방법이 곡식에 따라 다른 것처럼 구원의 방법도 사람에게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가장 적당한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같은 방법으로 징벌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징벌하실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익을 얻게 되고 근본적인 타격은 없습니다. 이것은 농부가 곡식을 거둘 때 부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파종하는 사람과 타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듯이 이 세상 모든 유익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시 36:6).

때때로 까닭 없이 환난과 고통에 빠지는 성도가 있으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믿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자대회의 이렇게 참여한다

### 기도하며 복음 들고 거리로

조대영(사랑부 지도)

사랑부를 이끌어가는 힘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의 따뜻한 가슴에 있다. 기도와 전도와 열매 맺는 삶을 위한 이번 사명자대회에 우리 부서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먼저 사명자대회는 기도 운동임을 생각하면서 사랑부의 지체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들도 서울교회의 가족으로서 이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래서 50일 연속기도회에 동참하기를 결의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건상 가능한 학생만하도록 하고 각자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랑부에서는 학생들 개인별 기도 시간을 배정해 주기로 했다.

둘째로 사명자대회는 전도 운동임을 생각하면서 10월을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는 달로 정하고 이미 전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

다. 오늘은 대학부 회원들과 함께 노방전도에 나설 것이다. 휠체어에 의지하고 나선 학생들의 모습은 조금 어색하거나 동정의 대상이 될지 몰라도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이런 기회를 통해 자꾸 키워나가려 한다.

셋째로 사명자대회는 열매 맺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의 열매뿐 아니라 자기 주변의 가족부터 교회에 나올 수 있게 전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려 한다.

교사들은 사랑부가 10월 29일 금요기도회에 주력부서이므로 이날 일찍부터 모여 함께 합심기도회를 가진 후 금요기도회에 동참하기로 했다.

###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삶을

이계홍(집사, 유아부 교사)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하나님 중심·교회 중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생활하고 있다. 교회 봉사도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기도도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오늘의 내 기도와 봉사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

이번 사명자대회의 기도운동도 역시 말씀

을 먼저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기간 중 영적 양식인 말씀을 많이 읽으며 영혼을 살찌우는 기간으로 삼으려 한다.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기를 소원한다.

### 기도 시간 아이들 영혼을 위해

문형미(초등부 교사)

바자의 열기를 이어 99 사명자대회가 시작됐고 50일 연속기도회의 열기가 퍼져가고 있다. 내게는 사명자대회라는 말부터가 침체된 신앙을 자극시켜 일으키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주께로부터 받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돌이켜보면 연초에는 초등부 교사로 임명받아 봉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스런 어린 싹들을 대했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가면서 직장 생활의 피곤함을 핑계로 기도의 사명을 소홀히 하며 때로는 교회 학교 교사라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한다.

특히 토요일 전화 심방 때는 내일 꼭 나오겠다고 약속하던 아이들이 막상 주일에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주일 아침에 전화를 하면 잠시 후에 교회에서 만나자고 철썩같이 약속했지만 교회에 갔을 땐 빈의자여서 그 자리를

바라보며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닐까하고 스스로 뒤로 물러가 침묵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 또한 고백한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었고 그럴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증보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하나 하나의 영혼을 붙잡고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

99 사명자대회의 연속기도회를 계기로 내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작정한 기도 시간을 꼭 지키려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취지 말고 기도하여 어린 영혼들을 위해 내가 해야 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내 자신도 다시 첫 믿음 첫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순례 길에서●

###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정자(권사, 7교구)

주님!  
예전엔 제가 주님 앞에 철이 없어서 은혜가 시련보다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고는 시련이 그치기만을 더 이상의 심한 시련이 닥치지 않기만을 간절히 빌며 기도했습니다.

지금와서 되돌아보니 은혜만이 축복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련 또한 더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준비된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시련을 잘 견뎌서 받은 은혜는 더 귀하고 귀하며 은혜를 받은 시련은 더더욱 귀한 보배입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야 확신하는 것은 감당치 못할 은혜는 주시지 않고 감당치 못할 시련 또한 더더욱 주시지 않으심을...

매사를 감사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두가 은혜인 것을...

은혜받은 자의 기쁨과 행복감으로 진리 안에서 항상 밝고 맑게 환하게 살며

고통 당하는 자 감싸고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떠한 경우라도 오직 변함없이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